

2023

5.22

CERIK 시장동향

2024년 05월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

○ 매매시장	2
○ 임대차시장	5
○ 공급	6
○ 수요	9
○ 금융	10
○ 부동산산업	11
○ 통계요약표	12



CERIK

Construction &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

한국건설산업연구원

당월 부동산시장 현황 요약 및 추이 분석

- 4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, 월간 0.01% 상승해 2023년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해
- 4월 전국 집합건물 매매 거래 중 생애최초 구입 비율은 44.6%… 정책 모기지 시행이 영향 준 듯
- 주택 인허가, 공공·민간·수도권·비수도권 등 분야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(전국 연누적 대비 22.8% 감소)

- ◎ **(종합)** 주택수요 지난해 8월~9월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증가
- ◎ **(매매)** 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0.01% 상승한 데 반해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0.05% 하락
 - 수도권은 6개월 만에 상승세를 회복하였고 지방은 25개월째 하락 중. 다만 지방 아파트 매매가 낙폭은 월간 0.05% 수준으로 최초 하락세로 돌아섰던 2022년 4월 수준으로 감소함.
 - 5대 지방광역시와 8개도로 구분해보면 8개도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약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, 5대광역시 아파트 매매가는 0.07% 하락함.
- ◎ **(거래)**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적으로 증가세…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수도권에서는 MoM 20.1% 증가하였고 지방에서는 MoM 22.5% 증가
 - 5대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의 거래량 증가폭이 컸고(MoM 29.8%) 8개도에서는 전북(MoM 39.5%)의 증가가 두드러짐.
 - 외지인 거래 비율 높은 지역은 대부분 월간 거래량 100건 내외의 군지역이나, 보령·광명과 같이 월간 거래량이 많은 지역에서도 외지인 비율 높음(보령 174건 중 60.9%, 광명 486건 중 59.1%).
 - 집합건물의 생애최초 구입 비율은 1월~2월과 달리 3월~4월에는 수도권에서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냄. 4월 수도권 생애최초 구입 비율은 46.6%로 나타나 2021년 이래 지속 상승하고 있음.
- ◎ **(임대차)** 신규 실행 전세자금대출의 평균 금리가 3%대로 내려앉으며 전세가격 변동률은 4개월째 커져
 - 지난해 11월에 집계된 전세자금대출의 평균 금리는 4.4%에 육박했지만 3월 들어 측정된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3.94%로 4개월 만에 0.5%p 가까이 하락함.
- ◎ **(공급)** 올해 1분기(1월~3월) 주택인허가 누적치를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지역, 모든 부문(공공·민간)에서 최소 8% 이상 감소
 - 분양 물량은 수도권은 1월이 가장 많았고 4월이 가장 적었던 반면 지방은 1월이 가장 적고 4월이 가장 많아 상반된 흐름 나타냄.
 -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의 경우 수도권에서 감소하였지만, 지방에서 더 많이 증가해 MoM 2.7% 상승함.

매매시장

1_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

- 4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, 0.01% 상승해 2023년 11월 0.05% 하락 이후 6개월 만에 상승 전환
- 3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2.3만 호로 2023년 10월 이후 6개월 만에 2만 호 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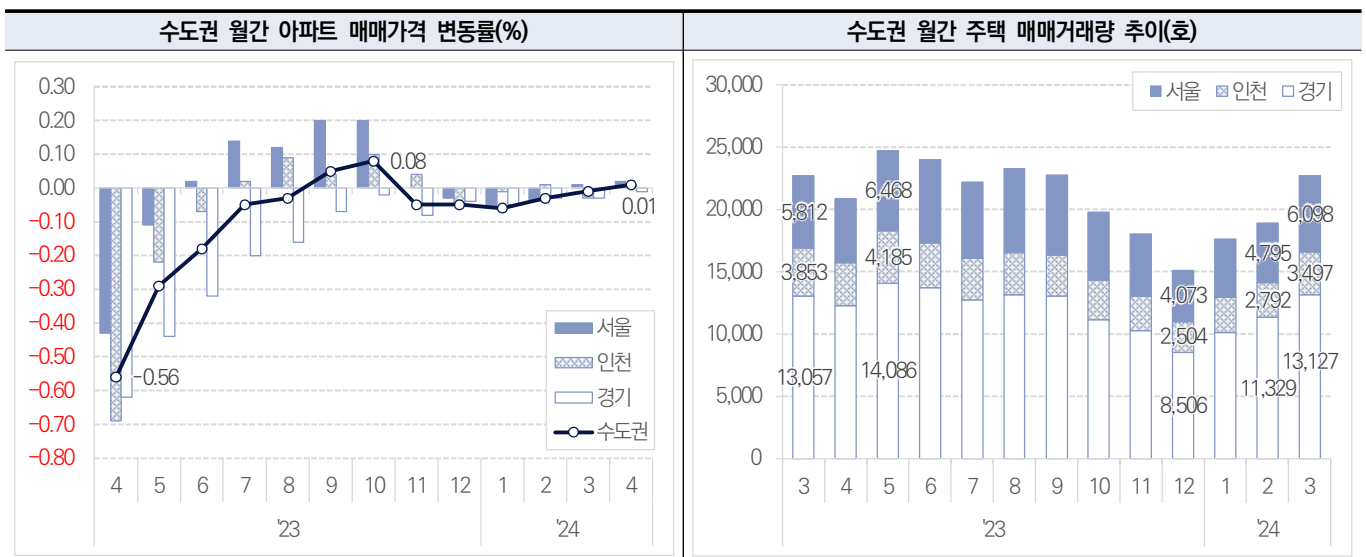
◎ (가격) 수도권 아파트 가격, 2024년 이후 하락 폭을 줄이다 4월 들어 처음으로 상승 전환(0.01%)

- 서울(0.02% 상승)과 인천(0.01% 상승)의 상승세에 힘입어 수도권 종합 0.01% 상승했으나 경기 지역은 여전히 0.01% 하락함.
- 단, 인천 지역은 2024년 들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해 완연한 상승세로 판단하기에는 이름(1월 -0.01% → 2월 0.01% → 3월 -0.04% → 4월 0.01%).
- 경기 지역은 2022년 2월 이후 27개월째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4월에 0.01%의 약한 하락세를 보인 만큼 5월 들어 다른 지역과 같이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함.

◎ (거래) 3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2만 2,722호로 집계됐으며 1.9만 호 수준이던 전월 대비 20.1% 증가

- 2.3만호에 달하는 수도권 매매거래량은 24개월래 가장 거래량이 적었던 2023년 1월(1만 299호)에 비해 2.2배 이상 많으며 직전 저점인 2023년 12월(1만 5,083호)에 비해서도 50.6% 많은 것임.
-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에서 전월 대비 각각 27.2%와 25.3% 증가해 거래량 증가를 이끌었고, 경기도는 전월 대비 15.9%가 늘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적었음.

수도권 주택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



※ 주 : 매매가격 변동률은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.

※ 자료 : 한국부동산원, 부동산1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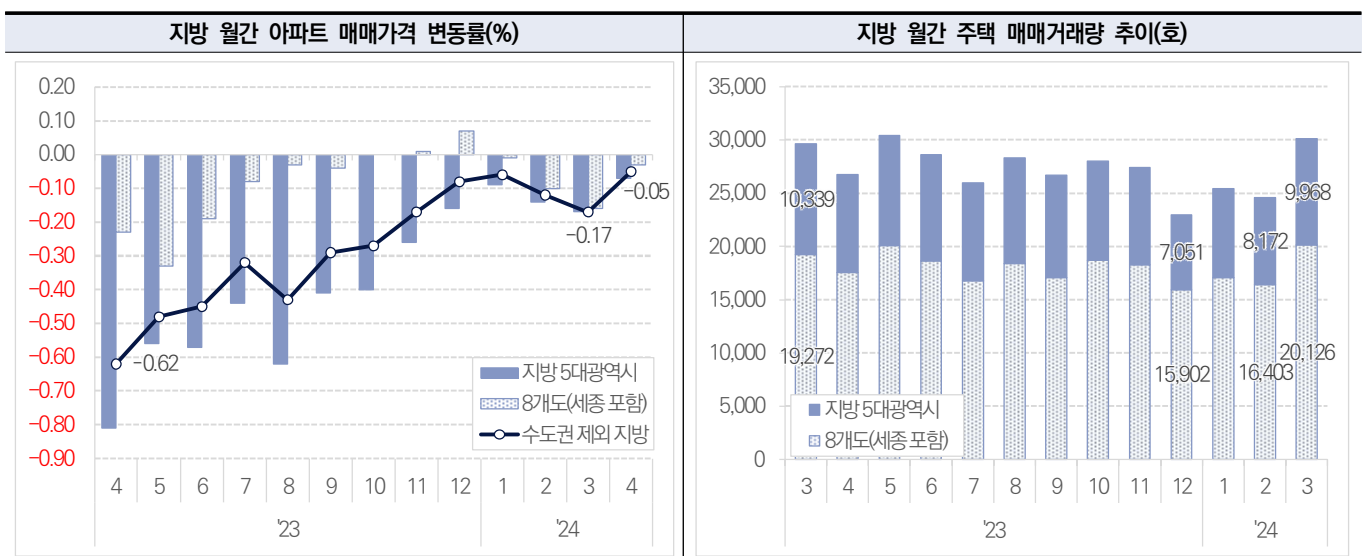
매매시장

2_지방(지방광역시·8개 도)

- 4월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0.05% 하락해 25개월째 하락세 이어져... 최초 하락세로 돌아섰던 2022년 4월 수준으로 낙폭 줄어
- 3월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 호를 넘겼으며 지난해 5월과 유사한 수준의 거래량을 보임.

- ◎ (가격) 2월 지방 아파트 매매가, 5대광역시 0.07% 하락한 데 반해 8개도(세종포함) 0.00%대 보합세 기록
 - 2월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0.05% 하락한 것으로 집계돼 전월(0.03%)에 비해 하락폭이 소폭 증가함.
 - 지방에 위치한 5대광역시 아파트는 25개월(2022년 2월~2024년 2월)째 하락세를 기록하는 중이며 그동안 누적 하락폭은 10.14%로 집계됨.
 - 세종을 포함한 8개도 지역의 가격은 2023년 10월 보합세를 기록한 데 이어 5개월째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유의한 상승세를 보여 5대광역시와 차이를 보임.
- ◎ (거래) 3월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(3만 94호)은 지난해 4월(3만 437호)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, 지방광역시와 8개도 간 비율도 유사하게 나타나
 - 지방 5대광역시 전역에서 MoM 20%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울산지역에 거래량 증가 큼.
* 부산 20.1% / 대구 22.4% / 광주 21.3% / 대전 19.1% / 울산 29.8%
 - 8개도 역시 MoM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졌고, 특히 전북(39.5%)의 증가폭이 큼. MoM 거래 감소 지역은 전남(-6.66%)이 유일하나, 이는 1월에 비해 2월 거래량이 20.2% 증가했던 기저효과 때문임.

지방 주택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



※ 주 : 매매가격 변동률의 경우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.

※ 자료 : 한국부동산원, 부동산114

매매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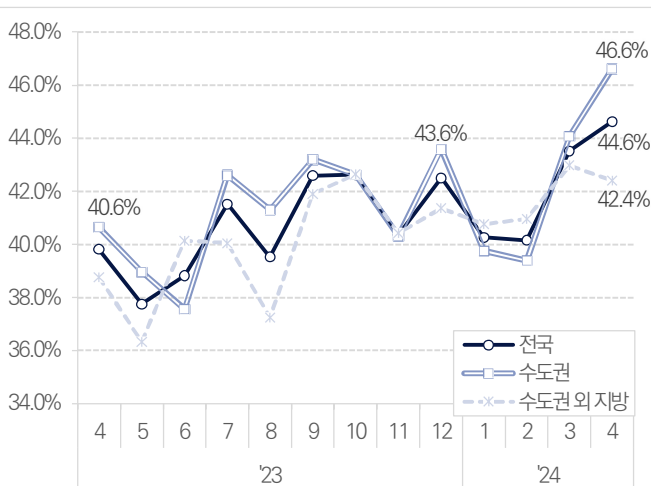
3_거래속성

- 4월 전국 집합건물 매매거래 중 생애최초 구입 비율은 44.6%로 지속 상승세
- 3월 서울 주택 거래 중 외지인 비율은 24.5%로 나타났고, 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 비율은 22.3%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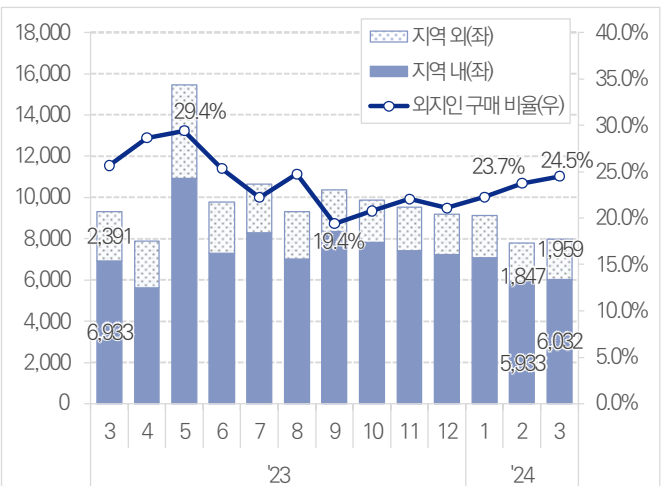
- ◎ **(생애최초 구입)** 4월 집합건물 매매거래 중 생애최초 구입 비율은 수도권 46.6%, 지방 42.4%로 지속 증가
 - 신생아 특례대출은 당초 27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시행 3개월 만에 신청액이 5조 원을 초과함. 2023년 시행됐던 특례보증자리론에 비해 증가 속도는 느린 편이지만 정책의 주요 대상인 신생아 출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소구하고 있음.
 - 하반기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소득요건이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될 예정이지만 신생아 출생 조건을 즉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.
- ◎ **(외지인 거래 비율)** 3월 서울 주택 거래 중 외지인 거래 비율은 24.5%로 전월보다 0.8%p 높아져 연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아파트로 한정하더라도 연중 가장 높은 수준인 22.3%를 기록
 - 3월 전국에서 외지인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았던 지역은 함평군(66.7%), 장성군(61.8%), 보령시(60.9%), 광명시(59.1%), 고령군(58.3%) 순이며 보령과 광명은 각각 총거래량이 174건, 486건에 달하였음에도 그중 60%가량을 외지인이 매수한 것으로 분석됨.

주택매매시장 거래 속성

전국 집합건물 매매거래 중 생애최초 구입 비율 추이(%)



서울 전체 주택 거래 중 외지인 구매 거래량 및 비율 추이(호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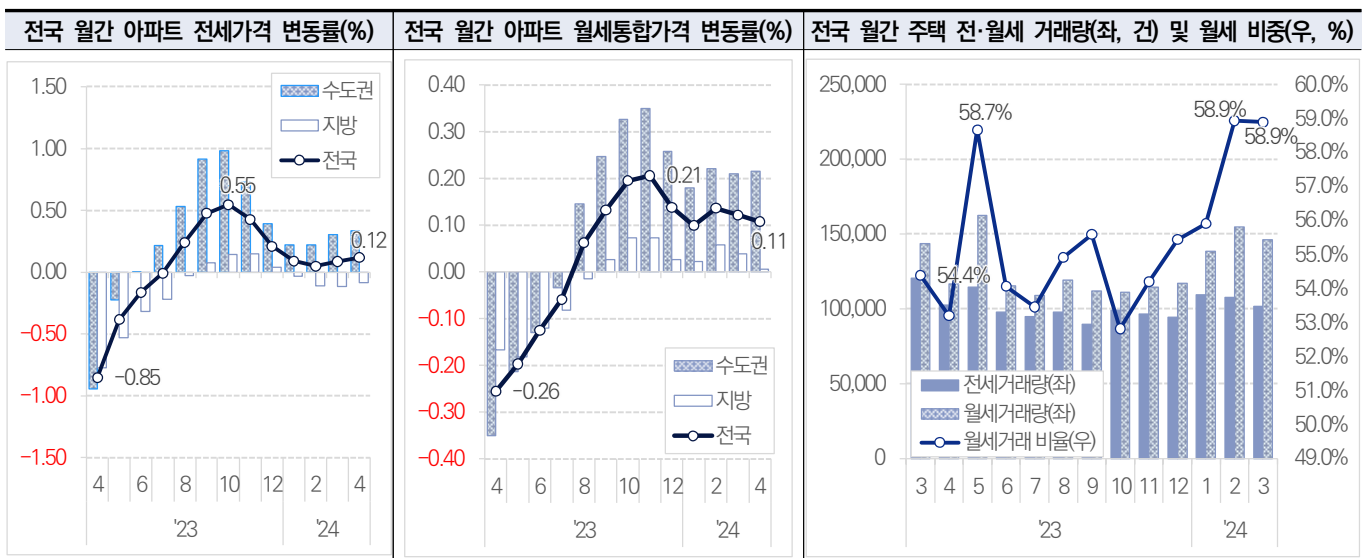
※ 주1 : '20년 4월 전국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87.8%로(동 기준: 경기도, 2020), 집합건물의 요체를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분석함.
 ※ 주2 : 등기 통계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속성을 지녀 전월 집계와 상이할 수 있음.
 ※ 주3 : 외지인 구매 중 '지역 내'란 매수인의 주소가 해당 시도 내인 경우를 말하며 '지역 외'란 시도 외의 경우를 말함.
 ※ 자료 : 한국부동산원, 법원 등기정보광장

임대차시장

- 4월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연중 가장 컸던 반면(MoM 0.12%), 월세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(0.12% → 0.11%)
- 3월 전월세거래량은 24.8만 건을 기록했으며 MoM 5.5%, YoY 6.1% 감소함.

- **(전세)** 4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0.09%에 이어 금월 0.12% 상승해 상승폭을 키우는 추세
 - 수도권은 상승폭을 늘리고(0.30% → 0.33%), 지방은 하락폭을 줄임(-0.12% → -0.09%).
- **(월세)** 4월 전국 아파트 월세통합가격¹⁾은 지방 상승폭이 지난달 0.04%에서 이번 달 0.01%로 줄어들어 내달 하락세로 접어들 수 있을지를 확인해야
- **(거래량)** 3월 전·월세 거래량은 전월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23년과 유사한 패턴을 드러냄.
 - 전국 전세거래량 2024년 1월 10.9만 호를 기록한 이후 2월 10.8만 호, 3월 10.2만 호로 감소 중
 - 월세 거래도 전세 거래와 유사한 비율인 MoM 5.7% 감소한 14만 6,042호를 기록함. 단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.6% 증가한 것으로서, 월세 거래 비율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함.
 - 참고로, 주택 전·월세 거래 신고제는 임대차제도 개편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명제 아래 2025년 5월까지 재유예 되었음.

전국 주택임대차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



※ 자료 : 한국부동산원, 국토교통부

1) '월세통합가격(지수)'이란 월세, 준월세, 준전세 지수를 각각의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지수임. 이하 동일함.

공급

1_인허가

- 국토교통부의 공급 통계 변동사항으로 인해 2023년과 2024년 통계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였음.
- 주택 인허가는 공공, 민간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감소세며 전국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.8% 감소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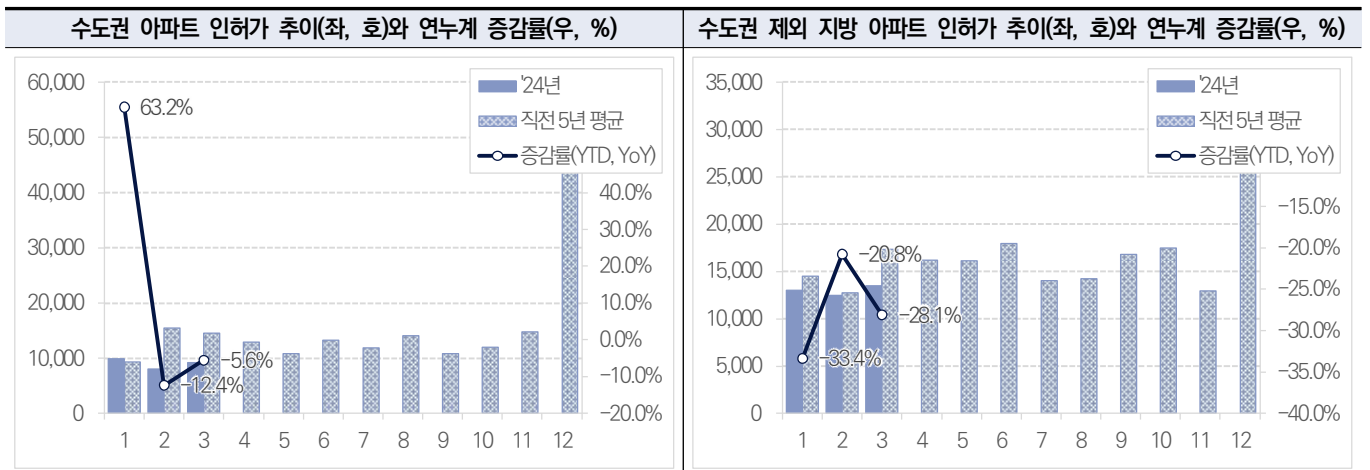
- ◎ **(주택 전체)** 1월~3월 지역별 주택인허가 누적치를 살펴보면 지방광역시에서 가장 감소폭 커(-30.6%)
 - 지난해 12월 공공부문의 인허가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래 2024년 들어 큰 감소폭이 이어지고 있음.
- ◎ **(APT)** 아파트 인허가의 연간 누적 추이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5.6%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28.1% 감소
 -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는 3월 들어 지난해보다 11.2% 증가했지만 2월 감소분이 영향을 줘 -5.6% 기록함.

주택 인허가 현황(YTD)

인허가 현황 (호, %)	지역별 합계				공공부문				민간부문			
	전국	수도권	지방 광역시	8개도	전국	수도권	지방 광역시	8개도	전국	수도권	지방 광역시	8개도
2023년 1~3월	96,630	35,331	22,631	38,668	3,998	2,809	687	492	92,642	32,522	21,944	38,176
2024년 1~3월	74,558	30,306	15,697	28,555	636	429	0	207	73,922	29,877	15,697	28,348
전년 동기 연누적 대비	-22.8%	-14.2%	-30.6%	-26.2%	-84.1%	-84.7%	순감	-57.9%	-20.2%	-8.1%	-28.5%	-25.7%

※ 자료 : 국토교통부

아파트 인허가 추이



※ 자료 : 국토교통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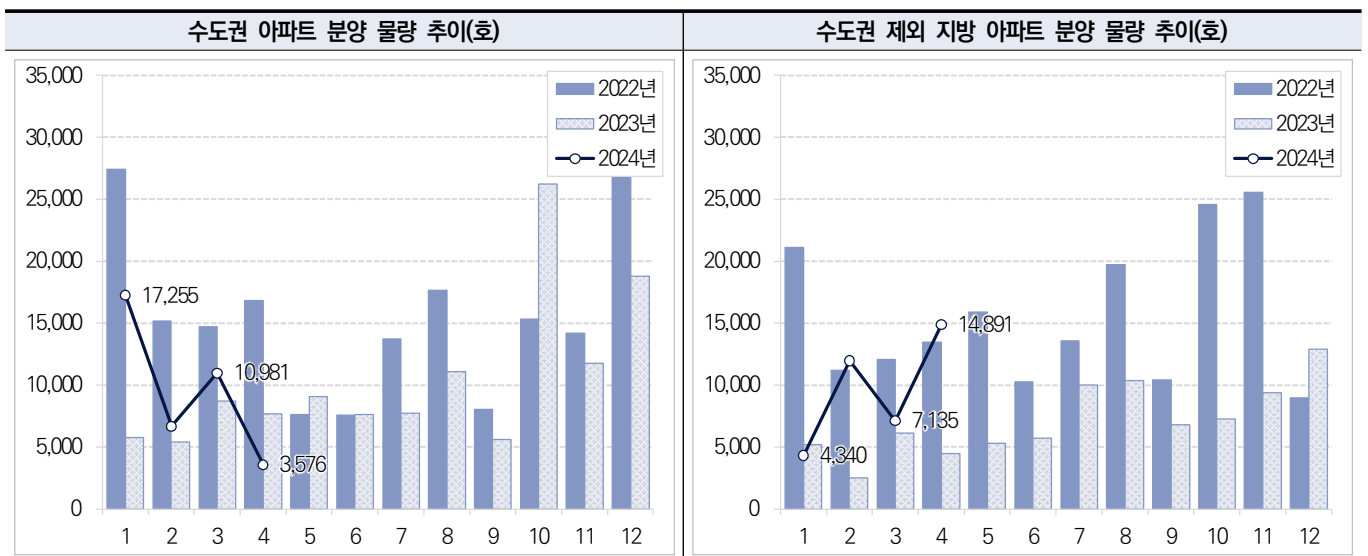
공급

2_분양

- 4월 전국 분양은 1만 8,467호를 기록, 3개월째 1만 8천 호 대 분양 실적을 보임.
- 지역별로는 수도권 월간 분양이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한편 비수도권 분양이 증가세를 나타냄.

- **(수도권)** 4월에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3,576호로 집계돼 2018년 8월 이후 68개월래 최저 기록
 - 서울과 경기 지역은 4월 들어 연중 분양 물량이 가장 적음(각각 MoM -64.4%, -74.5%).
 - 직전 최저점인 2018년 8월(2,919호)에는 규제를 우려한 물량 감소(8·2 부동산대책)가 주요 원인이었다면 올해 4월 분양 저조는 추가 규제가 없음에도 저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.
 - 4월까지 누적된 분양 물량의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은 50.1:49.9로 나타남. 지난해 같은 기간 36.0:64.0에 비해 수도권 비율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, 올해 수도권 비율이 높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지난해 지방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이해해야 함.
- **(지방)** 지방 분양은 3월 들어 주춤했으나 4월 들어 다시 증가해 연중 최다 물량 기록(월간 1만 4,896호)
 - 지방에서 4월까지 누적 물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광주광역시(1.2만 호)로, 지방에서 1만 호 넘게 분양한 지역은 광주가 유일하며 여타 지방광역시 4개 지역 누적 물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물량 기록함.
- **(분양계획)** 5월 분양계획 물량은 약 3.5만 가구로 2~4월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임. 4월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물량이 분양된 만큼 2만 호 이상의 분양이 시현될 것으로 기대

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추이



※ 자료 : 부동산1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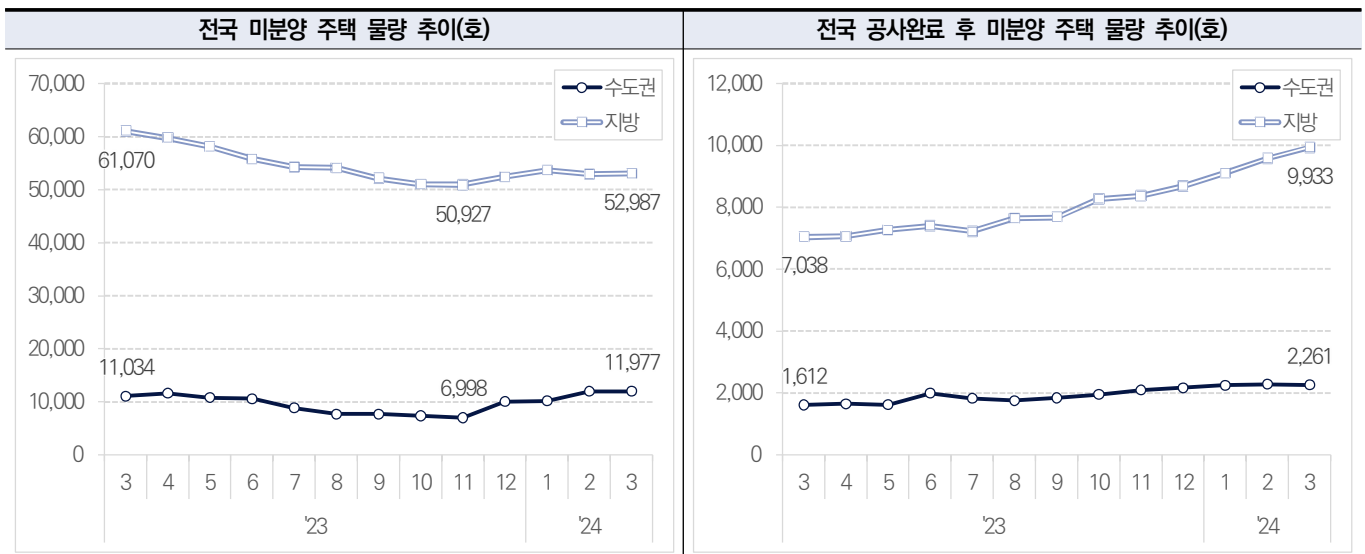
공급

3_미분양

- 3월 전국 미분양은 6만 4,964호로 집계돼 지난달에 비해 90호(0.14%) 증가... 1월 전고점에 비해 608호 감소
-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은 수도권은 감소했지만, 지방에서 증가하며 1만 2,194호로 집계돼

- ◎ **(미분양)** 3월 미분양은 2월에 비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소폭 증가했으며, 2월 미분양 물량의 상이한 변화에 의해 1월 대비 수도권은 증가한 반면, 지방은 감소
 - 수도권 미분양은 1만 1,977호로 전월 대비 21호 증가함. 이는 직전 저점인 2023년 11월의 0.7만호 대비 71.1% 증가한 수치이며 직전 고점인 2023년 2월의 1.3만 호에 비하면 4.5% 감소한 것임.
 - 지방 미분양은 직전 고점이었던 올해 1월에 비하면 감소하였지만 3월에 소폭(69호, 0.1%) 증가함. 4월 지방 분양 물량이 많은 관계로 지방 미분양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- ◎ **(공사 완료 후 미분양)** 3월 전국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에서 24호 감소하였지만, 지방에서 351호 증가해 전월 대비 327호(2.7%) 증가
 - 전국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은 1만 2,194호로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만 2천 호를 초과함.
 - 3월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은 직전 저점이었던 2022년 5월의 6,830호와 비교해보면 78.5% 증가한 것이며, 같은 기간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94.6%, 지방이 58.6% 증가해 수도권 증가율이 더욱 급격함.
 - 시공 기간을 감안해 2021년 이후 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분양 물량(54.7만 호)이 지방(51.4만 호)보다 다소 많은 것은 사실이나, 이를 감안하더라도 미분양 주택 물량의 증가세는 수도권이 급격함.

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 추이



※ 자료 : 국토교통부

수요

- 4월 수도권 매매수급동향 89.5로 지방의 89.4를 넘어서… 2021년 11월 수도권 수급동향이 지방보다 낮아진 이후 최초
- 4월 주택가격전망 CSI 지수는 101로 나타나 2023년 11월에 보여준 102에 육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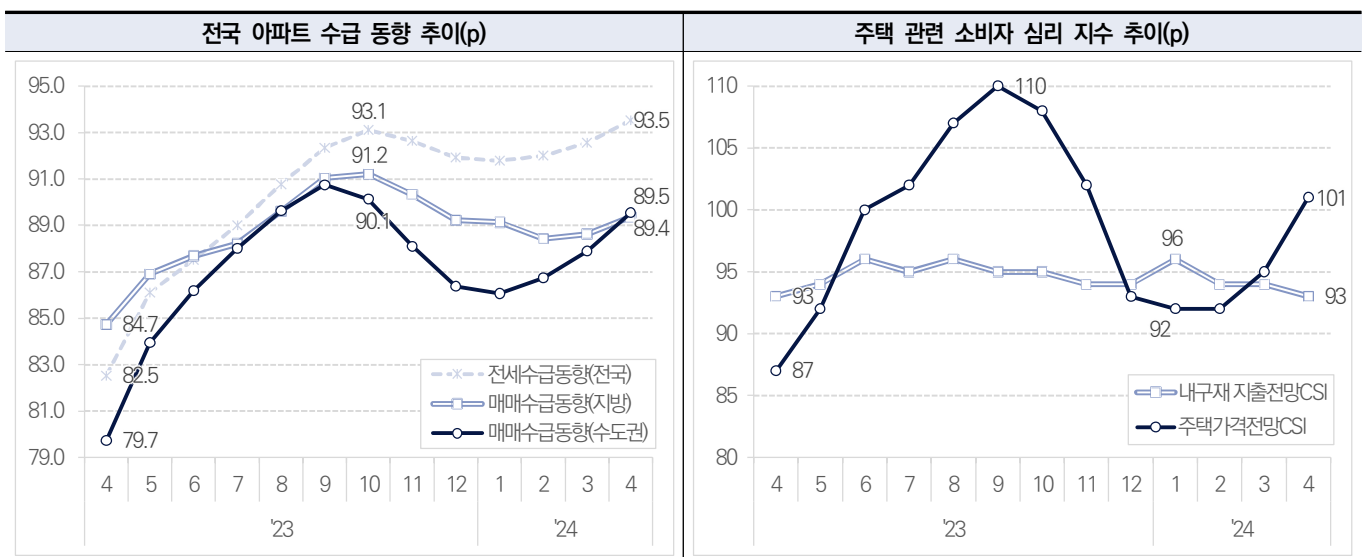
◎ (수급동향) 2024년 들어 지역과 거래 유형을 가리지 않고 수급 동향 증가세

- 수도권과 지방의 매매수급동향은 각각 1월과 2월에 직전 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 반전했으며 1월 대비 4월까지 상승률은 수도권 매매수급동향 4.0%, 지방 0.3%로 수도권의 기대감이 빠르게 회복
- 지방보다 수도권 매매수급동향이 높아진 것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30개월 만에 최초임.
- 전국 전세수급동향 역시 1월 91.8을 기록한 이후 4월 들어 93.5까지 상승함.
- 지난달 본 고에서는 최근 수급 동향의 개선은 ①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하와 ②향후 기대되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, ③정책 모기지 유입 등의 요인을 꼽은 바 있으며,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.9%대에 머무르면서 4월에도 수급 동향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.

◎ (소비자심리) 4월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1p로 전월 대비 6p 상승

- 3월까지 100p 미만을 기록하며 상승 전망보다는 하락 전망이 컸던 주택가격 전망 CSI는 4월 들어 101p를 나타내며 상승 기대감이 늘어난 상황임.
- 내구재 지출 전망 소비자심리지수는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심리 지수와 달리 하락세 지속함(93p)

전국 아파트 수급 동향 및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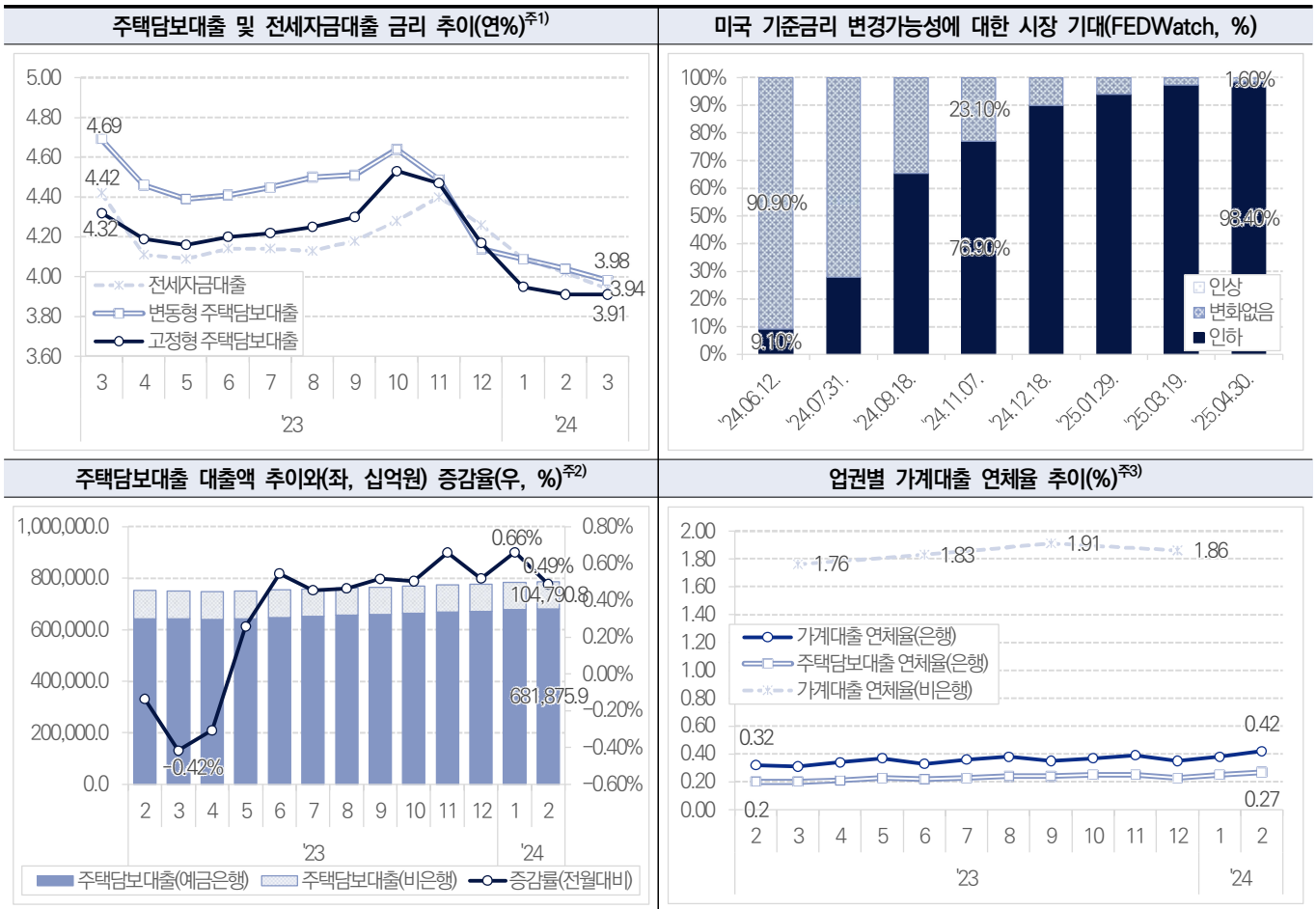
※ 주 :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 생산되는 수급동향 자료 중 매월 말 지수를 월간 대표 지수로 처리하여 분석함.

※ 자료 : 한국부동산원, 한국은행

금융

- (금리) 2024년 1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이어 3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(3.98%)와 전세자금대출 금리(3.94%)도 3%대에 진입함으로써 주거 관련 주요 대출의 금리가 모두 3%대에 진입
 - 주택담보대출(고정형, 변동형)과 전세자금대출이 모두 3%대를 기록한 것은 2022년 5월 이후 처음인데,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.75%였고 현재 기준금리가 3.5%라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의 마진 폭이 매우 줄어들어 있다는 점을 의미함.²⁾
 - 전문가들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기는 전월과 유사한 2024년 하반기 경임.

주택 시장 관련 금융 변수 추이



※ 주1 :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,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HF 월간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중위값(짝수인 경우 중위수 두 값의 평균)임.
 ※ 주2 : 본 자료에서 비은행이란 상호저축은행, 신용협동기구, 우체국예금, 종합금융회사 등 은행이 아니지만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을 말함. 이하 같음.
 ※ 주3 : 비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자료는 분기별로 집계되며, 임의로 분기 말(3·6·9·12월)에 입력하였음.
 ※ 자료 : 한국은행, 한국주택금융공사, 금융감독원, Chicago Mercantile Exchang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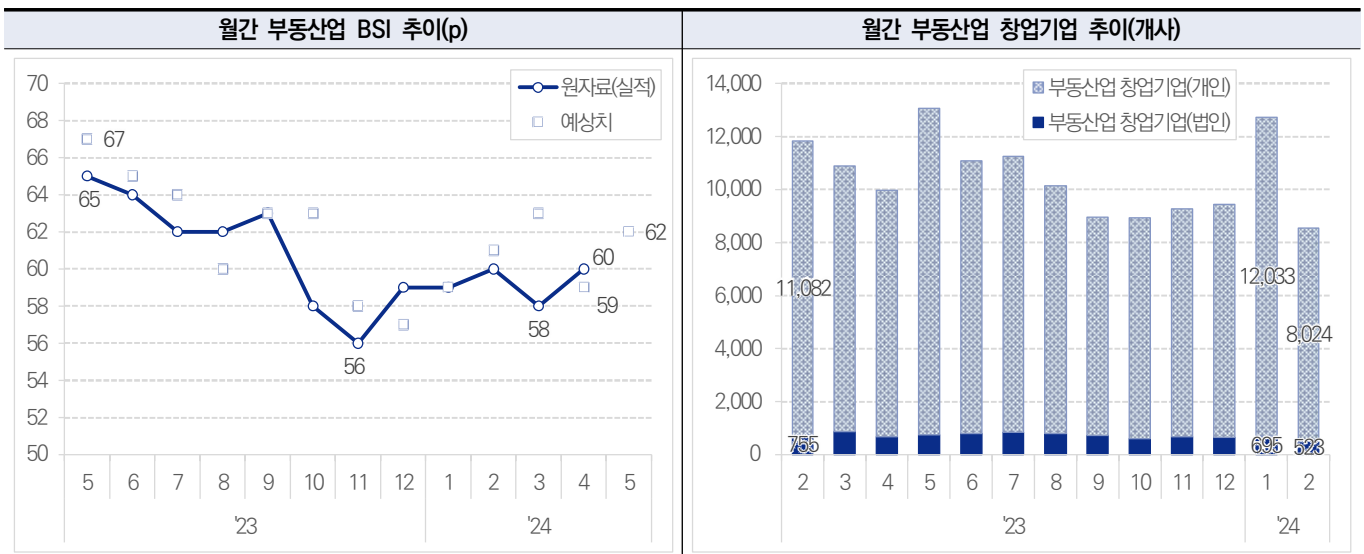
2)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직접 연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COFIX나 KORIBOR 역시 기준금리와 떨어지지 않는 관계이므로 이와 같이 서술함.

부동산산업³⁾

- (부동산업 BSI) 4월 부동산업의 업계 현황 기준 BSI는 60p로 조사돼 3월 58p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며 2월과 동일한 수준
 - 단 2월에는 예상치(61p)를 하회하는 실적을 보였던 반면 4월에는 업계의 예상(59p)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들 수 있음.
 - 5월 예상치는 62p로 4월 실적에 비해 다소 개선되리라 전망함. 거래량 증가 등 시장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월 대비 개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짐작됨.
 - 만약 예상했던 수준까지 실적이 개선된다면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기 시작했던 지난해 8월~9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임.

- (부동산업 창업기업 수) 2024년 2월 부동산업 창업기업 수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8,547개로 2016년 1월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재경신
 - 월간 창업기업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은 2023년부터로, 2016년~2022년 월간 창업기업 수 평균이 2.4만 개⁴⁾가 넘었던 것에 비해 2023년 이후에는 1만 개를 갓 넘기는 수준으로 줄어들.
 -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2014년 초 저점을 기록했고, 2021년까지 대세 상승세를 그려왔던 추이를 감안한다면 향후 창업기업 개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
부동산업 경기지수 및 창업기업 추이



※ 자료 : 한국은행, 중소기업부

3) 본 고에서는 '부동산산업'의 범위를 데이터 출처의 정의에 따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'L.부동산업(68)'로 정의함.

4) 정책 사유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창업기업이 많았던 2020년 1월(13만 4,698개)을 제외한 평균임.

부동산시장 통계요약표

항 목	변화율 · 변화량					최신 집계치 ^{주1)}	최근 5년 변화 추이		
	직전 5년		직전 3년		YoY			MoM	
	고점	고점대비	고점	고점대비	-			-	
거시경제	경기선행지수 (p)	114.3	0.0%	114.3	0.0%	4.6%	0.1%	114.3	
		95.6	19.6%	105.8	8.0%				
	소비자물가지수 (p)	114.0	0.0%	114.0	0.0%	2.9%	0.0%	114.0	
		99.2	14.9%	102.1	11.7%				
가격지수	수도권 아파트 매매 (p)	480.4	-9.3%	480.4	-9.3%	-0.6%	0.0%	435.6	
		303.7	43.4%	435.6	0.0%				
	지방 아파트 매매 (p)	334.0	-8.4%	334.0	-8.4%	-2.6%	-0.0%	307.6	
		240.3	27.3%	305.9	0.0%				
거래량	수도권 주택 매매 (건)	75,725	-70.0%	47,389	-52.1%	0.0%	20.1%	22,722	
		10,299	120.6%	10,299	120.6%				
	지방 주택 매매 (건)	77,078	-61.0%	50,135	-8.4%	1.6%	22.5%	30,094	
		15,462	94.6%	15,462	94.6%				
공급	전국 아파트 분양 (호)	63,520	-71.5%	63,520	-71.5%	21.7%	-2.8%	18,116	
		7,985	126.9%	7,985	126.9%				
	전국 주택 미분양 (호)	75,438	-13.9%	75,438	-13.9%	-9.9%	0.1%	64,964	
		13,842	369.3%	13,842	369.3%				
금용	주택담보대출 금리 (%)	4.82	-0.88%p	4.82	-0.88%p	-0.46%p	-0.02%p	3.94	
		2.39	1.55%p	2.69	1.25%p				
	주택담보대출잔액 (십억 원)	786,666.7	0.0%	786,666.7	0.0%	4.4%	0.5%	786,666.7	
		608,003.8	29.4%	696,280.0	13.0%				

※ 주1 : 통계 발표 시점에 따라 당월 혹은 전월 집계치를 활용함.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제외한 모든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분석함.

※ 주2 : 가격지수는 자료의 추가 수집 등 지수 작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시 갱신될 수 있음.

※ 자료 : 국토교통부, 한국부동산원, 한국은행, 부동산114

약어표(가나다 順)

용 어	내 용	비 고
BSI	기업경기실사지수(Business Survey Index)	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
CSI	소비자심리지수(Consumer Sentiment Index)	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
MoM	전월 대비 변화율(Month-on-Month)	
YoY	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(Year-on-Year)	
YTD	연초 대비 누적 변화율(Year-to-Date)	